

민주 '금고형 이상' 공천 배제 확정 파장과 전망

탈락자 무소속 출마 불사... 후폭풍 클 듯

박지원·김홍업·이정일 인지도 높아 출마엔 접전 예상

수도권 입지자들 "불가피한 선택... 경쟁력 올라갈 것"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5일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파렴치법·개인비리 등 모든 형사법 가운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4·9 총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호재=하지만 수도권 민주당 입지자들은 이 같은 공천 심사 기준으로 '공천 혁명'이 가능해졌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파동에 이은 공천 쇄신으로 한나라당에 압도당하고 있던 선거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비록, 당을 위해 희생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에 달라는 당 지도부의 의견에 대해 "강력한 권고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원칙을 지킬 것임을 확실히 해 기준이 수정되는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다.

수도권 입지자들은 이 같은 공천 심사 기준 확정에 이어 호남 현역 의원 30% 이상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전패 위기까지 몰렸던 수도권에서 수십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날 공심위의 공천심사 기준 확정 전인 4일 이뤄진 것이지만 최고위원회의와의 합의를 위해 확정을 보류하다가 이날 기준 확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공천 쇄신'에 대한 공심위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체 기류를 바꾸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큰 일부 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수도권에서의 전체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천 탈락자들 무소속 출마할 듯=이 같은 공천심사 기준 확정으로 우선 박지원(목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홍업(무안·신안) 의원, 이정일(해남·진도·완도) 의원 등의 공천 탈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된다.

수도권 입지자들은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체 기류를 바꾸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큰 일부 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수도권에서의 전체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 일각에선 이 인사들이 공천쇄신의 결실물을 스스로 치우겠다는 후보 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들의 반발 수준과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무소속 출마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입지자들은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체 기류를 바꾸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큰 일부 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수도권에서의 전체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천 심사에서 배제된 이들 세 후보 모두 높은 인지도와 상당한 조직력이 있어 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입지자들은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체 기류를 바꾸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큰 일부 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수도권에서의 전체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 세 후보가 무소속 연대를 통해 민주당 측과 경쟁할 경우 그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어서 목포, 해남·진도·완도, 무안·신안 선거구는 호남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 입지자들은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체 기류를 바꾸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큰 일부 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수도권에서의 전체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 공천 배제 대상자 현황

Table with 3 columns: Name, Party/Region, and Details. Lists names like 박지원, 김홍업, 이용희, 이상수, 이정일, 이호용, 신계륜, 김민석, 설훈, 이정일, 신건 and their respective political details.

“납득 안되는 결정 분하고 억울하다”

공천 배제 대상 인사들 반응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5일 "금고 이상 형을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4·9 총선 공천 기준을 확정하면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김홍업 의원이 직격탄을 맞는 등 상당수 유력인사들이 공천 심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장은 이에 대해 "공심위와 당이 협력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일괄적으로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허탈해 했다.

불법자금 1억5천만원을 받아 노무현 선대위에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이호용(인천 남동) 전 의원은 "당시 선대위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한 일밖에 없다"며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탈락 대상 인사들은 이날 일제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외에도 17대 총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도정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정일(해남·진도) 전 의원, 지난 2003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 시절 1억 1천여만원의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서 SK그룹과 금호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박지원(목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지역감정과 이념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사건으로, 공천 배제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과 비상장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

“일부 지역감정과 이념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사건으로, 공천 배제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김명구 전 의원(광양),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신건 전 국정원장 등도 공천 심사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2년 기업체에서 각종 이권청탁을 목적으로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벌금 4억원 형이 확정됐던 김홍업(무안·신안) 의원은 “자꾸 개인비리라고 말하는데 정치적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희생양을 만드는 꼴”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거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서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비리 전격자로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안희정(충남 논산·계룡·금산)씨, 노무현 후보 선대위의 총무본부장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이상수(서울 중랑) 전 노동부장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민석(서울 영등포) 전 의원, 1990년대 초 교육감 선거 청탁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된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국회부의장 등도 박재승 위원장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 총선기획단장인 신계륜(성북) 사무총장은 2006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노무현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 된다.

기 어렵게 됐다.

당 총선기획단장인 신계륜(성북) 사무총장은 2006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노무현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 된다.

기 어렵게 됐다.

당 총선기획단장인 신계륜(성북) 사무총장은 2006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노무현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 된다.

기 어렵게 됐다.

당 총선기획단장인 신계륜(성북) 사무총장은 2006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노무현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 된다.

기 어렵게 됐다.

당 총선기획단장인 신계륜(성북) 사무총장은 2006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노무현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 된다.

기 어렵게 됐다.

당 총선기획단장인 신계륜(성북) 사무총장은 2006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노무현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 된다.

기 어렵게 됐다.

동교동계 영향력 이대로 끝나나

DJ측, 김홍업·박지원 공천 배제에 '부글부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부장·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 결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DJ)으로 상징되는 동교동계 호남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전망이다.

의 비례대표 진출도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당장 DJ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게데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특히, 공천 혁명은 통합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되는 호남은 물론 민주·개혁 진영의 공통된 요구라는 점에서 동교동계에서는 반발보다는 당분간 침묵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 등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다 해도 DJ의 차남과 핵심 인사의 공천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예전과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교동계의 이 같은 정치적 영향력 약화는 지난 대선에서 DJ의 조인 정치가 별다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듯이 김홍업 의원의 무리한 보궐선거 출마 등에 따른 호남 여론 악화 등이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교동계 호남 정치권의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잠시 뒤로 물러서지만 추후 정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또, 공심위의 이번 결정을 막지 못한 지도부에 대해서도 추후 정국 전개과정에서 상당한 불신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천 기준으로 인해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실장의 공천이 배제된다면 동교동계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히, DJ의 연명 등을 고려할 때 동교동계의 정치적 파워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wasan' (화산) featuring a golfer and a table of golf course fees for various courses like '무안-신안', '무안-진도', '정서', '장서', '경서'.